

『현대사회와 다문화』 창간호를 발간하며

현대사회는 한편으로 자본의 힘에 의해 촉진되는 문화적 획일화 과정을 겪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최소한 외형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혼합된 다채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특징지어진다. 그 동안 주류 사회 속에서 억눌려 있었던 여러 유형의 소수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자신들의 문화를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게 되었고, 자신들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수자 문화에는 성적 소수자, 장애 소수자 등의 문화를 포함하지만, 최근 우리의 일상생활과 담론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종적 소수자 문화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의 지구지방화 과정과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은 상품과 자본뿐만 아니라 사람과 문화의 초국적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과 이들의 문화를 접하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앞으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물론 단순히 인종적, 문화적 혼종성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사회공간적 관계의 구성 방식, 나아가 정치경제적 작동 메커니즘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수자들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포함한 소수자들의 삶과 문화, 정체성과 권리는 여전히 주류사회·문화에서 주변화된 채 차별화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소수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들의 삶 자체가 피폐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도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및 이의 극복

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 학문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대구대학교에서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를 창간하게 되었다. 최근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술연구와 더불어 많은 저서와 학술지들이 출간되고 있지만,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특히 관련된 다양한 학문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학제적 공동 노력을 통해, 그 동안 양적으로 발전한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더욱 깊게 발전시키면서, 다문화 관련 담론을 더욱 넓게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창간호에서는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위한’ 최병두의 시론과 더불어 조규범(법학), 최병두·신혜란(지리학 및 도시계획학), 최종렬(사회학) 등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선정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주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특히 주목한 연구들은 김연희(사회복지학), 김화수·송은주(언어치료학)와 같이 대학의 학술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이교일(대구가정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겨레(북한이주민지원센터) 등 관련 실무기관들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 편집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학술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게재할 논문들을 부분적으로 사전에 기획할 예정이지만,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관련 논문들의 자유로운 투고도 환영하고자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학술지 논문 투고 및 구독 회원으로 참여를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본 학술지 『**현대사회와 다문화**』가 현대사회와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자 한다.

2011년 6월

편집위원장 최병두